

“월간양계” 잡지 발간의 산고



오 봉 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고문

1. 머리말
2. 내가 가금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
3. 미국유학에서 배운 산학협동
4. 가금연구회의 발족
5. 장안동 양계강습회
6. 한국가금협회 창립
7. 육추일지(育雛日誌)와 협회운영
8. “월간양계” 잡지 발간의 산고
9. 전국 순회 양계 강습회
10. 나의 연구생활
11. 양계박람회
12. 닭 경제능력 검정소
13. 재래닭의 복원과 육용화 연구

본고는 양계와 한평생을 함께 한 오봉국 교수(서울대 명예교수)가 그 동안의 인생여정을 정리하여 출간한 ‘축산의 비전을 심으며 살아온 나의 인생여정’ 자서전 내용 중 ‘양계와 함께 걸어온 나의 회고’ 내용을 발췌, 게재한 것이다. 오봉국 교수는 1925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나 1956년 서울대학교 축산과에서 농학석사과정을 거친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석, 박사과정을 마친후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양성은 물론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웠다. 1969년에는 (사)한국가금협회장(대한양계협회 전신)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대한양계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1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현대가금학 등 16편의 주옥같은 저서를 남겼다. - 편집자주 -

8. “월간양계” 잡지 발간의 산고

1968년 12월에 제 4대 협회 회장에 본인과 부회장에는 박도현, 강금로 사장님이, 그리고 상무이사에 당시 서울시립농대 최창해 교수가 맡게 되었다.

협회운영은 예나 지금이나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운영비의 10%도 되지 않고, 거의가 협회를 맡은 임원들의 참여와 활동, 그리고 일부회원들의 희생적인 찬조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상 협회를 맡고 보니 할 일은 많으나 예산의 뒷받침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전임 회장단과 임직원들의 노고를 새삼 실감나게 되었다.

그때 「월례강습회」는 서울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어서 비교적 수도권의 회원은 양계기술과 시장정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나 지방에 있는 회원이나 양계인은 여름철 1년에 한번 있는 지방순회강습회 때 기술 강습을 받는 정도여서 양계인들 중에는 월례강습회도 좋으나 양계잡지를 발간하여 전국에 있는 양계인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은 물론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양계시장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지방과 중앙과의 격차를 좁히고 양계경영의 목표를 올바르게 세워서 차질 없이 해나가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었다.

당시 양계업계에는 부화협회와 가금협회의 두 단체가 있었으나 필요성은 다 같이 느끼면서도 잡지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자원 마련이 어려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잡지 발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신통한 묘안이 없었다. 결국 비장의 수법을 다시 한번 써 볼 수밖에 없었다. 그 비장의 수법이란 「육추일지」발간에서 배운 광고 찬조로 업체에 대하여는 광고 찬조금에 해당하는 수량의 잡지를 주면 찬조업체에서는 자기 회사 물건을 사가는 양계가에게 무료로 잡지를 배부한다면 양계가는 월간양계를 무료로 보게 되고 보급도 빨리 될 것으로 생각되어 협회로서는 양계를 위하여 일거양득이 되는 셈이었다. 이러한 「노하우」는 신정재(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이 나에게 제안해준 비법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안이 성사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즉 일부에서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육추일지」는 년 1~2회 정도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나 매월 광고비를 내라면 과연 업체에서 호응할 것인가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일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해보기로 하고, 우선 잡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로서 3개월간의 발간 비용 100만원의 목표액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그때 100만원은 지금의 화폐가치로는 약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먼저 협회이사로서 종계와 부화업을 하는 이 사로부터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3개월간 광고료를 청탁 드렸으나 1968~1969년도는 불행히도 과잉생산으로 양계불황을 겪고 있을 때라 돈을 선뜻 낼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았다. 협회로서 잡지 발간의 큰 「스폰서」는 역시 돈이 많은 동물약품업체와 사료업체였다. 회장단과 이사진이 각자 통할 수 있는 상기 두 종류의 업체를 방문하여 광고 찬조를 받기로 하고 한 달 동안의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어떤 회사에서는 책을 가지고 와야 돈을 주겠다. 또는 몇 달이나 지속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돈 없이 무슨 사업이냐는 등 말도 많았으나 가금협회가 그동안 착실하게 성장해 오고 내부적으로 단결이 된 충실한 협회라고 하는 데는 모두 동감하고 있어서 가금협회에 대한 「신임도」가 좋아 잡지 발간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여 주었다. 오세정 교수와 나는 서울대 농대나 건대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고 그 전부터 인연이 있는 큰 제약업체와 사료업체를 찾아다녔다.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의 개인적 친분이거나 체면 때문에 광고청탁을 받아 주었다.

나는 광고주로 가장 청탁액수가 큰 「제일사료」 회사 광고를 얻기 위하여 밤차로 호남선 열차에 몸을 싣고 군산까지 방문한 일도 있다. 그리고 유한양행에는 김영희 선생이 인솔하는 팀이 떠나고, 서울약품에는 나와 오세정 선생 등이 합세하고, 대한사료(지금은 대한뉴팜)에는 박도현, 김현배 선생 팀이, 그리고 수도미생물, 제일

사료 경인총판의 삼양상회에는 이필용, 이재근 선생 팀 등으로 나누어 모금운동에 나섰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강습회예산에서 경비를 절약하여 잡지경비에 충당할 셈으로 최창해 교수, 오세정 교수, 이창구 박사, 박근식 박사와 함께 5~6명이 여관에서 큰방을 하나 얻어 합숙하고, 무더운 여름 더위와 모기의 수난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달픈 지방순회를 한 기억도 생생하다.

1969년 9월에 제1차 편집위원회를 열고 원고 청탁과 편집에 들어갔다. 그동안 모금된 청탁액은 26개 회사로부터 약 2개월분의 인쇄비가 거출되었다. 초대 편집위원장에 서울대 한인규 교수가 선출되고, 편집내용은 시사성이 있고 새로운 양계 기술 등 알찬 내용의 편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물론 원고료는 무료로 봉사하기로 하고 돈이 생기면 형편에 따라 그때 가서 원고료조로 얼마를 지불하기로 하고 집필을 청탁하였다. 1969년 11월에 드디어 『월간양계』 창간호가 발행되었고, 제호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같이 근무하던 고 윤석봉 박사가 써주었다.

이때 『월간양계』 편집과 인쇄 등 어려운 책임을 맡아본 김영옥(현 제일사료 사장 겸 (주)하림 부회장)씨는 두 달간 집에도 못 가고 밤낮을 사무실 책상에서 침식을 해가면서 편집에서부터 인쇄, 교정, 광고, 「컷」정리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한 보람이 있어 창간호가 오랜 진통 끝에 탄생하게 되었다.

가난한 협회 살림에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이 당시 편집부장 김영옥씨가 엮은 『편집후기』의 한 토막을 소개한다. 편집후기(1969. 11월호) -창간호에서- 『산고의 출산고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은 풍월에 불과하지만, 정말로 하나의 생

명체를 빛을 보이게 하기까지의 진통이 이토록 심할 줄이야... 하나 이 괴로움이 석류알 같이 알알이 익어가겠지』(김). 월간양계 창간호를 발간할 당시 양계협회에서 같이 동고동락한 직원 중 이재식 사장(당시 양계협회 총무과장)과 차묘순씨(당시 총무과 회계주임)가 있었는데 차묘순씨의 편집후기도 여기에 게재한다.

편집후기(1969. 12월호) -제2권- 『월간양계 잡지를 만들면서부터 노상 눈알이 빨갭게 토끼 눈처럼 충혈 되어 있고 항상 배 안에 빈 독을 찬 것처럼 허덕대고 있는 미스터 김(김영옥씨)을 볼 때마다 원 저렇게 힘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데카론 C” 안약을 사다주고 가끔 밤참용으로 옥수수, 오징어도 사다 줘 보지만 여전히 『미스터김』의 눈은 빨갭고 배 안엔 밀 빠진 독이 하나 들어있나 보다...』(차)

끝으로 『월간양계』를 탄생시키기까지 나와 함께 노고를 같이 하여 주신 당시의 부회장 강금노 사장과 박도현 사장,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과 상무이사로 협회 살림살이를 돌봐주시고 고생하신 최창해 상무이사님(전 서울산업대학 교수), 편집위원장 한인규 박사님, 항상 나를 격려해 주신 김현배 선생님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관련 업계 유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월간양계』가 발간된 지 어언 47년이 지난 지금, 월간양계지를 대하면 감개무량하며 잡지의 편집 내용이나 기사가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면도 200여 페이지에 이르렀으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어 창간인의 한 사람으로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 잡지가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기여한 바도 크며, 특히 새로운 사양관리기술의 보급과 양계인의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계